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7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2분기 교사교육이 있습니다.

전 용 씨와 권정희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6일(토) 오후 1시 춘천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27일 김순복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환경칼럼에 나와 있는 전기 기기 중 전력 소비가 높은 기기 사용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왕하 5:1~14 / 시 30
갈 6:1~6 / 눅 10:1~11, 16~20

호 14:1~9

식 당 봉 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영아 백묘현 윤성중
다음 주 식당봉사: 장혜숙 박성실 심상숙 정현선 오자영 최영혜 허호범
오늘설거지봉사: 두란노 2속
다음 주 설거지: 두란노 1속
새 교 우 : 정영례 노성희 설재용 김선희 김홍기 양정화 조은상 김소연 김원중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무 그늘같이 시원하고 넓은 품을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호흡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나라를 일구는 멋진 일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충돌하며 혼란과 혼동을 반복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길잡이 삼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박옥식 안보혜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봉옥 이진영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장원호 박성희 정복순 최종원
 한상의 정연선 한인철 조운숙 홍선희 홍성식 이유리 무명

월정헌금

김신실 이순용 김인석 이선아 김정훈 이진영 류건영 이주은 윤성종
 김윤정 이경남 이재삼 전정현 이준림 임고운 정종삼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하현철 최성애 허명선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숙 김재흥 최희영 박준희 이기분 송남철 신민철 안정자
 오미경 유영남 김철수 이범석 류정욱 이병수 정혜숙 이상재 한상의
 정영선 한지혜 무명7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박성희	노순옥
	김재흥	최경미	이재문	차혜심
	장영숙	신영신	신영신	최종미
	정경례	진정숙	조병주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교회	김경수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배삼순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이순정
	이형숙	윤수진	윤수진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이증자
	정영선	서정순	교회	홍춘숙
	박혜경	조항미	교회	심상숙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그들은 나무의 생각이다

나무의 생각이 그들을 만든다
 그들을 넓히고 좁히는 것은 나무의 생각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무는
 나무가 받고 싶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든다
 그들은 일하다가 쉬는 나무의 자리다
 길을 아는가 물으면 대답하지 않고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서 제 지닌 만큼의 자유를 심으면서
 나무는 가지와 잎의 생각을 따라 그들을 만든다
 수피 속으로 난 길은 숨은 길이어서 나무는
 나무 혼자만 걸어 다니는 길을 안다
 가지가 퍼놓은 수평 아래 아이들이 와서 놀면
 나무는 잎을 내려 보내 아이들과 함께 논다
 가로와 세로로 짜 늘인 넓은 그늘
 그들은 나무의 생각이다

- 이기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위선을 행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거짓으로 꾸미는 길을 버리고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신진식 전도사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주혜연 선생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의 장로	장성호 선생 김극 집사

7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송동준 김윤정 김현주 김진경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전기세로 알바하자!

최근 우리 집 비데가 고장이 났다. 워낙 게으른 귀차니즘주의라서, 겨울도 지난 상황이라 비데 고치는데 열성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달, 희한한 고지서 하나가 날아왔다. 월 전기세 19,000원대... 헉 이게 뭐야? 결혼 후 15년 동안에 과연 1만 원대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 본 적이 있었던가? 1만 원대 전기세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비데였고, 비데의 혁혁한 공로로 우리 집 전기세는 사용량 100kw대에 1만 원대를 달성하게 되었다.

우리 집은 그다지 전기를 아끼는 편은 아니다. 마루 천장이 높은 관계로 마루에 달려 있는 삼파장 전구 수는 무려 12개. 환한 걸 좋아하는 나는 그다지 아끼지 않고 불을 밝혀 놓고 있는 스타일인데, 우리 집 전기세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이번에 비데를 통해 깨달은 전기세 아끼는 비결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수도권처럼 안 살아도 많이 아낄 수 있다.

요즘 가전제품들은 절전형으로 설계가 되어서 과거에 비해서 전기 소모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전기세를 아끼는 첫 번째 요령은 전기 먹는 하마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전기 먹는 하마들은 바로 상시 전기를 먹어 깨끼는 놈들이다. 사람들이 에어컨 무서운 줄만 알지 정수기나 전기밥솥 무서운지는 모른다. 그런데 사실, 가정용품 중에서 최악의 전기하마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놈들의 특징은 꾸준히 전기를 소모한다는 것이다. 단지 플러그만 꽂아놓고 있는 대기전력이 아닌, 온도를 뜨겁거나 차갑게 하기 위해 꾸준히 전기를 소모하고 있다. 앞서 말한 비데도, 좌변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꾸준히 전기를 소모한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놈이 무섭다. 실제 최근 서울시에서 제작한 전기절약 관련 책자와, 언론에서 통계 낸 자료를 보면, 정수기는 전력 소모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 그럼 1위는... 상시 전기를 먹는 놈이다. 보통은 냉장고로 알려져 있고, 에어컨을 가장 무서워하지만, 최고의 전기하마는 바로, 전기밥솥이다. 전기밥솥의 경우, 취사와 보온 양쪽을 모두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전기 하마로 등극한다.

그 외에도 플러그를 뽑아놓을 때 들어가는 대기전력을 집안의 가전제품으로 확대해 보면, 월에 약 41kw나 된다고 한다. 수도권 비슷하게 살고자 마음먹고 이 대기전력에까지 손을 댄다면 월전기사용량을 200kw는 물론 100kw 마저 깨고 내려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핵심은 이거다. 전력을 꾸준히 쓰는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지체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정수기의 경우, 정수기능만 사용하고(정수기능은 전기 없이도 가동됨) 냉장고와 전기주전자 등으로 냉온수를 대체할 경우, 실제 추가되는 전력 소비는 매우 미미하다. 전기밥솥도, 일반 압력솥을 사용해 밥을 하고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울 경우엔, 현저하게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다. (실제론 이게 밥맛이 더 낫기도 하다!)

이외에도 컴퓨터와 모니터, TV의 셋톱박스 등도 강력한 전기하마들이다.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외출하는 거보다 더 큰 에너지 손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손발이 약간 고생한다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약간 손해 보는 것처럼 사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면, 에너지 절약도 그런 예수살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수도권처럼 살지 않아도, 작은 실천으로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울여름 우리에게 주어졌다.

구분	가전기기	연간 사용시간	소비전력		연간 전력사용	
			W	순위	kWh	순위
생활용	TV	1,837	162.8	12	298.6	5
	컴퓨터	867	211.8	9	186.9	8
	세탁기	237	215.5	8	58.3	14
	전기다리미	70	1,255.0	2	96.1	12
	진공청소기	135	1,154.7	4	156.1	10
주방용	가습기	346	62.3	13	23.6	16
	일반냉장고	8,760	57.0	15	499.6	2
	김치냉장고	8,760	21.4	16	187.1	7
	전기밥솥(취사)	367	1,077.1	6	417.8	3
	전기밥솥(보온)	4,698	100.7	12	505.6	1
난방용	전자레인지	65	1,149.9	5	75.5	13
	전기장판/담요	790	174.8	10	146.1	11
	전기난로	230	1,157.0	3	290.2	6
냉방용	전기히터	193	814.1	7	158.1	9
	선풍기	593	59.0	14	35.0	15
냉방용	에어컨	206	1,750.3	1	357.8	4